

‘국내 워드프로세서의 수준을 끌어올려’

-한글, 한자처리 개발-

박동인

1. 개요

‘명필’의 모체는 1979년 말 ‘정보산업 토착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이전체제 개발 연구’라는 출연 연구과제(그 당시 E-Project라고 불리었다)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초기의 시스템은 Z-80 CPU의 Micro Computer(CROMEMCO)에 한글이 표시되는 CRT-Display Terminal(Phoenix-1)을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프린터는 TRILOG100이라는 Line Matrix Printer를 사용하였다.

이것이 국내 최초로 한글, 한자, 영문처리가 가능한 WORD-80이라는 이름으로 1980년 10월 중순 미문화원에서 Wang Korea와 함께 발표되었다.

그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고려시스템(주)과 함께 첫번째 상품 모델인 WORD-88이 만들어졌으며, 기능향상과 함께 H/W의 독자적인 개발을 하여 1983년 후반기에 워드프로세서 전용기인 명필I이 발표되게 되었다.

그후 고려시스템(주)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명필II,III,IV가 발표되었으며 스프레드 시트 기능과 DTP 기능을 갖춘 슈퍼 명필의 발표가 있는 후 1991년 고려시스템(주)의 도산으로 명필의 이름은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2. 추진동기와 배경

초기에 워드프로세서 개발의 목표를 보면 각인 단위의 에디터에서 스크린 단위 에디터가 주요 목표였으며 삽입, 삭제, 치환 등이 주기능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글, 한자, 영문을 처리할 수 있는 편집기는 없었으며 더군다나 마이크로 컴퓨터(그 당시에는 PC가 없었다)에서 CRT 터미널을 이용해 이러한 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첨단(요즈음에는 상식화된 사항이지만) 기술에 속하는 것이었다.

WORD-80(80년대에 발표되었기에 '80'을 붙였음)이 발표될 때 마이크로 시스템 가격은 그 당시 조그만 아파트 1채를 살만한 가격이었고, 미문화원에서 발표할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구성, 가격에 있어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시스템(주)에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여 정부지원하에 WORD-88('88'은 그 당시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기에 미래 지향적인 의미에서 붙였다)이라는 이름으로 상품화하기에 이르렀고, 가격은 조그만 자동차 1대 가격으로 줄였으며, 그후 지속적인 보완 작업과 고려시스템(주)의 H/W 개발 노력으로 워드프로세서 전용기인 명필I을 발표하게 되었다. 그당시 가격은 2~3백만원선이었다.

그 당시 자주 경쟁 대상이 되었던 시스템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큐닉스의 으뜸꼴이었으며, 일반인들의 판단은 글꼴은 큐닉스가 좋고 조작의 편리함은 명필I이 좋다는 평판을 얻고 있었다. 덕분에 정부 일부 부처에 명필I이 보급되면서 판매와 개발에 활기를 띠게 되었고, 성기수 소장님께서도 전산개발센터의 공문서는 명필로 작성하라는 지시와 함께 센터에서도 명필I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참여 연구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명필을 납품하기 전날 시스템의 고장으로 소스 프로그램을 밤새워 가며 재입력하여 납기일을 맞춘 것이나, 추운 겨울 밤을 새며 작업하고 소파에 쏘그리고 자다가 허리를 다친 일이나, 전시 때만 되면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안타까워 하던 일 등. 이러한 모든 일들이 명필I,II,III,IV로 향상되면서 불안감이 해소되고 기능이 안정되어 갔다.

그리고 어느 컴퓨터 업체를 방문했을 때 워드프로세서는 최소한 명필 수준은 돼야 한다고

했을 때 이에 따른 자부심이 생겼고 고려시스템(주)의 대외적 이미지가 명필로 대변되는 시절의 참여 연구원들의 뿌듯함은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속속 여러 업체 또는 대학에서 워드프로세서가 개발되면서 그 경쟁은 심화되어 갔고, 명필II의 개발 이후부터는 고려시스템(주)의 독자적 개발능력 향상과 함께 연구소의 지원 체제는 감소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시스템 성능 향상과 PC가 저변화되면서 명필보다 더 훌륭한 워드프로세서들이 개발되었고, 서울대학생이 개발했다는 워드프로세서(이후의 한글)가 서서히 사용되면서 연구소에서는 그런 워드프로세서를 못만드냐는 질책(?)이 있었다. 이에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되었고, 명필II 개발 이후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명필 개발은 국내의 워드프로세서 수준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었고, 실제 상품화 되어 많이 보급되었으며, 사무자동화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